

가상박람회 정보엑스포 '96 센트럴 파크 '산책'

인터넷 고속선(Internet Railroad)

인터넷 고속선은 정보엑스포'96을 위해서 전용으로 사용되는 초고속 인터넷망이다. 정보엑스포'96은 비디오, 오디오를 포함한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세계와 송수신하는 실험의 장이므로, 이제까지 인터넷에서 사용하던 회선보다 훨씬 더 큰 용량과 빠른 속도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과 일본의 센트럴파크는 T3(45Mbps)급의 회선으로 상호 연결되는데 이는 기존의 인터넷에서 사용하던 T1(1.544Mbps)의 30배에 이르는 대용량이다.

전시관(Pavilions)

정보엑스포'96 행사의 전시관(Pavilions)이란 문화, 사회, 교육, 과학기술 등의 여러가지 내용을 문자, 그림, 동영상, 음성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전시할 수 있는 웹 페이지 형태의 가상공간 상의 전시관을 뜻한다.

전시관은 그 내용과 제작자에 따라 주제전시관(Theme Pavilions), 공공전시관(Public Pavilions), 기업전시관(Corporate Pavilions), 개인전시관(Individual Pavilions)으로 나뉜다.

이러한 전시관을 만들기 위해서 예전의 박람회에서는 많은 경비와 인력이 필요했지만 정보엑스포'96에서는 웹페이지를 제작하기만 하면 무료로 링크할 수 있으므로 정보의 민주화와 대중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WWW(월드와이드웹)의 하이퍼링크(hyperlink)방식으로 제작된 전시관으로 들어간 관람자는 한국 전시관에서 미국도서관으로, 프랑스 박

물관으로, 일본 전시관으로 순식간에 이동하는 등 자유롭게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나아가, 단순한 구경꾼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전시관 내용에 직접적으로 반영하여 정보전시관의 구축에 동참할 수 있다.

올해 12월말까지 계속해서 새 전시관이 열리고 일단 개관된 전시관들도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게 된다.

국제 센트럴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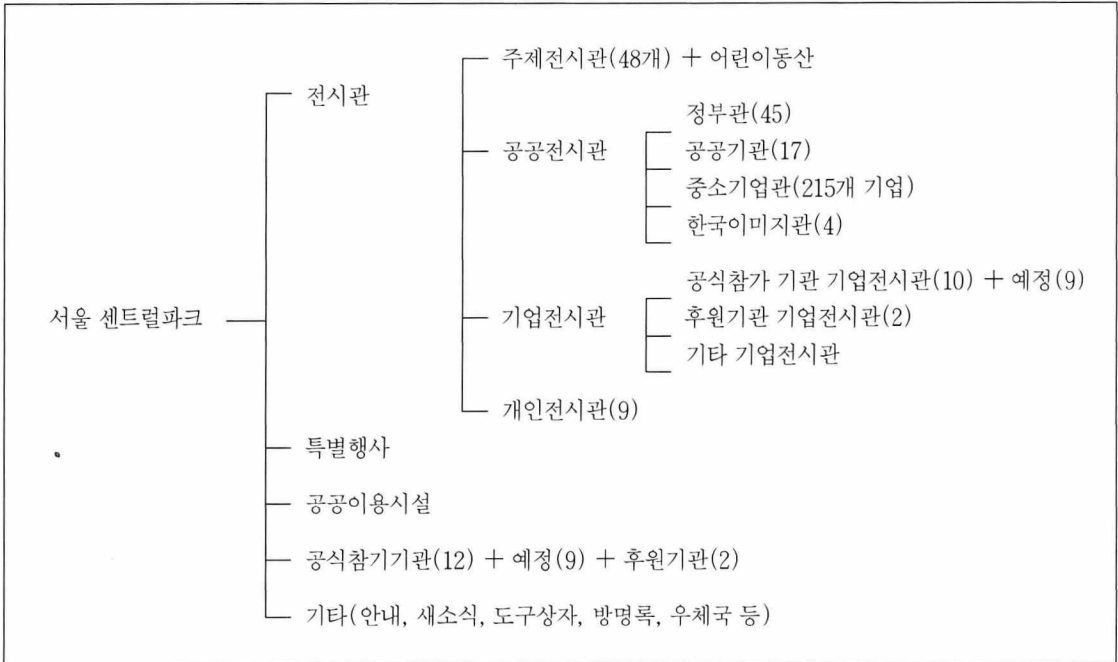
국제 센트럴파크들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일련의 컴퓨터로 구성되며, 모든 컴퓨터는 서로 협조하여 지구촌 시민 공원을 구성하게 된다. 1996년 한해동안 센트럴파크는 인터넷 엑스포의 홈페이지가 되어 전세계인들이 서로 협력하며 작업하는 방법을 배우는 장이 될 것이다.

센트럴파크 사이트

여러지역간에 체계적인 상호복제, 하비스트(Harvest)와 같은 효율적인 정보 검색을 위한 인덱스 구조, 독립적인 사이버스테이션을 인터넷 공중망으로 연결하여 실행시키는 기타 여러가지 방법들을 바탕으로 전세계의 센트럴파크 사이트들은 서로 협력하고 있다.

센트럴파크는 각각 GIX(Global Internet Exchange, 글로벌 인터넷 교환기)에 위치한 일련의 대형 서버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센트럴파크는 분산 형태로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이트가 추가될 것이다.

〈서울 센트럴파크 안내도〉



현재 구성된 센트럴파크 사이트

미국 워싱턴 D.C.Internet Multicasting Service	http://park.org/
일본 도쿄 WIDE 프로젝트	http://japan.park.org/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NIKHEF	http://amsterdam.park.org/
영국런던 임페리얼 대학 Sunsite	http://imperial.park.org/
호주 애들레이드의 Digital City	http://adelaide.park.org/
한국 서울의 한국전산원	http://seoul.park.org/

서울 센트럴파크로 가는 길잡이

시 작
 넷스케이프 등 웹 브라우저를 띄운다.
 서울 센트럴파크로 들어가는 주소를 입력한다:<http://seoul.park.org/>

회선 대역폭(Bandwidth)을 선택한다.
 56Kbps 이상의 회선을 사용한다면 High를 선택하여 빠르고 넓은 회선의 열차를 탄다. 그래픽이 화려한 서울 센트럴파크로 달려간다. 14.4Kbps 이하의 회선을 사용한다면 Low를 선택한다. 텍스트 위주라서 좀 단순하지만 간결하게 펼쳐진다.

언어 선택하기(한글/영어)
 서울 센트럴파크의 모든 내용은 전시관에 따라 일어, 불어, 독어 등을 제공하는 곳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글, 영어의 두가지 언어로 제공된다.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면 서울 센트럴파크로 들어갈 수 있다.